

「10~21」 나뉜 글과 글속에 답이시오.

“그거 표구할 수 있겠지?”

“표구?”

“그래.”

“그야 할 수 있겠지. ㉠ 창호지니까.”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그래 **화가**인 자네 생각을 했지 뭐냐.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서 줌 해 주지 않겠나?”

“그야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이걸 표구해서 뭘 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 온 건가, 이 ㉡ 휴지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운 거지.”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때면 날마다 빠지 않고 들르는 **지계꾼**이 있단다. 은행 문 앞에 지계를 벗어 세워 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댓 나

보이는 그 꺼먼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뭘지요?”

“예, 예, 저어…….”

“여긴 은행이오, 은행!”

“예, 그러니까 저 돈을…….”

청년은 어리둥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글쎄, 은행이라니까!”

“예, 그런데 그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니 뭘 말시오?”

“저금을 조금두 할 수 있습니까?”

“저금요!”

은행 안의 모든 시선들이 그 지계꾼에게로 쏠렸다.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서 나가려는 그를 불러 세운 것은 예금 창구의 여직원이었다. 청년은 손에 말아 쥐고 있던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백 원짜리 지폐 다섯 장과 새로 새긴 목도장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여직원에게 바쳤다. 청년은 저만치 한구석으로 가 서서 불안

[A] 스러운 눈으로 멀리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랐다. 생전 처음 그는 씨 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여직원 앞으로 달려와 뺏뺏한 통장을 받았다.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굵신굵신 절을 하고는 한 손에 통장을 받쳐 든 채 들어올 때처럼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통장을 확인할 경향도 없이.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저녁 무렵이면 꼭꼭 들렀다. 하루에 이백 원 혹은 삼백 원 또 어떤 날은 오백 원, 그의 통장에는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 있었다. 이제는 제법 안내원과는 익숙해졌으나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떤 날이었다. 그날은 여느 날보다 조금 일찍 청년이 은행엘 들렀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얼마 넣으시겠어요?”

여직원이 미소로 물었다.

“예, 기계 오늘은 줌…….”

청년은 무언가 종이 뭉텅이를 들고 머뭇거렸다.

“왜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동전으루…… 그동안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깨었죠. 기래 여기 이렇게…….”

청년은 종이에 쓴 것을 내밀었다.

“아이, 많이 모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청년은 뒤통수를 긁적거리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지계꾼 청년이 동전을 싸 가지고 온 종이지.”

친구는 내 손의 그 **편지**를 가리켰다.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세는 여직원을 거들어 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돼서 가지고 온 것뿐이니까.”

우물집할머니하루알고갔다. 모두잘갔다한다. 장손이장가갔다. 색씨는너머마을곰보영감딸이다. 구장네탄실이시집간다. 신랑은 읍의서기라더라. 앞집순이가어제저녁감자살마치마에가려들고왔더라.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나는빨리장가안들어야전나.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 나왔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어쨌든 나는 그 창호지를 아는 표구사에 맡겼다. 그게 어떤 편지냐고 묻는 표구사 주인한테는,

“굉장한 겁니다. 이걸 정말 ㉠ 국보급입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표구사 주인은 머리를 가웃거렸다.

그 후 나는 그 창호지 편지를 감감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니떠나고매칠안이서송아지났다.

그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펼쳐서 액자 속에 들어 있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밥묵고배 아프면소금한줌무그라하더라.

그날부터 그 ㉢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 두었다. 그저 걸어 둔 거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 갔다. 그걸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 아니 그걸 분명 그 둘이 합쳐진 것이었다.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태 동안 그 액자를 간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

니무슨주변에고기묵건나. 콩나물무거라. 참기름이나마니쳐서 무그라.

순이는시집안갈끼라하더라. 나는빨리장가안들어야전나.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 이범선, 『표구된 휴지』 -

18.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가’는 대상을 표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눈앞의 종이를 ㉠으로 지칭하였다.
- ② ‘화가’는 눈앞의 종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에 주목하여 이를 ㉠으로 지칭하였다.
- ③ ‘표구사 주인’은 종이에 담긴 내용에 주목하여 ‘화가’가 이를 ㉡이라 한 말에 동의하였다.
- ④ ‘화가’는 종이가 ㉢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갔다.
- ⑤ ‘화가’는 표구한 종이의 글에서 그림 같은 느낌도 받으며 ㉣이 점차 화실의 중심점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19.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 내용을 간접 인용으로 서술하며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 ②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인물의 상반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추측하는 진술로 장면 서술을 마무리하여 인물의 빠른 움직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20. [편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신자도 알 만한 사람들의 소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 ② 혼사와 관련하여 수신자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고 있다.
- ③ 아픈 상황이 생겼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수신자의 먹을거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조언하고 있다.
- ⑤ 재물보다 수신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표구된 휴지』에서는 ㉠ 외화인 ‘화가’의 이야기에 ㉢ 내화인 ‘청년’의 이야기, ㉡ 또 다른 내화인 ‘편지’ 내용들이 연결되거나 삽입된다. 외화와 내화가 연결될 때, 한 문단 안에서 이어가거나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 시점과 시·공간적 배경이 다른 두 이야기를 연결한다. 외화에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는 편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화가’의 흥미와 관심이 드러난다. 또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 ‘화가’가 떠올린 편지의 내용을 보여 주기도 하고, 거듭 제시된 내용을 통해 ‘화가’가 편지를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음을 알려 주기도 한다.

- ① ㉠에서 ‘지계꾼이 있단다’라고 들었음을 서술한 뒤에 ‘은행’의 ‘안내원이 막았다’는 ㉢의 첫 문장을 서술한 것은, ㉠에서 ㉢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한 것이군.
- ② ㉢에서 ‘구석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이게’로 ㉠을 다시 이어 간 것은, ㉢에서 ㉠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연결한 것이군.
- ③ ㉠에서 ‘재미있다’고 한 ‘친구’의 말 뒤에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비시시 웃’게 되는 이유를 보여 주는군.
- ④ ㉠에서 ‘비행기가 떠날 때’의 장면 뒤에 ‘니떠나고’로 시작되는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에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떠올린 ‘화가’가 ‘그길로’ ‘표구사’로 가는 행위로 연결되는군.
- ⑤ ㉠에서 ‘친구의 심정’을 생각한 내용 다음에 앞서 제시했던 ㉢의 일부를 다시 삽입한 것은,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들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화룡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 있어
뿔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龍沼)를 굽어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 들으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화룡더러 말하기를
이내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테니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 다오
화룡이 옹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
들으니 그럴듯해 건넌산 바라보니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A]

(중략)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 금강문에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 리 남짓 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上下湯)이 늘어 놓여
넓적한 돌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보슬비 계속 내려 주점에서 머물고
이십일 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여
만물초 구경하려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指路僧)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되
① 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라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산 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으리오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여
봉래의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할 제
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만 이천 봉 빛이 눈앞에 역력하다

- 홍정유, 「동유가」 -

(나)

7월 3일(금)

총석정은 다음날 와서 찾아가기로 하고 송전(松田)으로 오다.
송전처럼 좋은 데가 왜 아직 이름이 못 났을까. 왜 깨끗한
여관 하나, 세별장(貰別莊) 하나 없을까. 단 두 집의 여관, 모두
여인숙급인데 하나는 이름이 없고 하나는 ‘동해여관’이라 대서
(大書)하였다. 이름 있는 집으로 정하다.

고저(庫低)가 곳간 바닥 그대론 듯이 송전은 솔밭 그대로다.
거리도 반은 솔밭 속에 묻히었다. 해풍에 자란 솔들이라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 밑에 돛자리나 깔아 놓으면 소나무 하나
마다가 훌륭한 정자겠다.

솔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새*가 보드랍지만 않고 쨍쨍
소리가 날 듯 양명(陽明)하다.

거리에서 ㉠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 본 적이 없다. 혼례식장
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天空), 해활(海闊), 거기엔 딱 뻗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되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철봉이 하나, 나는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겨우 네 번을 하다.

바다는 물결이 세다. 뽀—얀 수말(水沫)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려 쓴다.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서 나부
낀다. 향기도 강하건만 파도 냄새에 묻혀 꺾어 들어야 코를
찌른다.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

밤에 창이 하 밝기에 주인에게 물으니 보름달이라 한다. 홀
고의적삼이 추우리만치 산산하나 다시 여관을 나섰다.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 달빛만이 짝—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좌— 좌— 하고 흩어지는 것 같다. 길뿐이
아니라 솔밭 위에도, 철로 위에도,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도,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이 달의 바다 아래에선 물의 바다는
너무나 조그맣구나! 그리고 달의 바다는 너무나 성스럽구나!

새 한 마리 노래하지 않는 솔밭, 들창 하나 열리지 않은 빈
별장들, 누구를 위해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사람이야 나와서
보건 말건, 정물(情物)이 아닌 파도만 치는 곳에, 달은 이렇듯
밝아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고도(無人孤島)들, 높은 산봉우리들,
남북극지의 빙원들, 또 그리고 무수한 천공에 달린 별의 세계들,
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도다.

- 이태준, 「해춘 일지」 -

* 모새: 가늘고 고운 모래.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하여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에 빗대어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⑤ 자연의 극한적 상황을 제시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다.
- ② ㉡은 글쓴이가 걷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는 길이다.
- ③ ㉠은 화자가 가려던 길이고, ㉡은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이다.
- ④ ㉠은 화자가 일행을 찾아 떠나는 길이고, ㉡은 글쓴이가 일행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이다.
- ⑤ ㉠과 ㉡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걷기에 편한 길이다.

2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사자봉’ 중턱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파인 곳에 끼어 있는 ‘돌 하나’는 ‘못’의 용이 재주를 부려 옮긴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산 중턱의 ‘틈’과 ‘이 돌’을 견주면서 그 크기가 유사함을 제시하고 있다.

2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술’의 생김새에서 ‘파라술’을 연상하면서, 설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리고 있다.
- ②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 ③ ‘뽀—얀’ 물거품이 ‘눈보라처럼’ 퍼지는 바닷가의 풍경을 바라 보면서, 바다를 젊음과 연결하고 있다.
- ④ 밤 풍경 위를 채운 ‘달빛’을 ‘달의 물결’로 인식하면서, 세상 곳곳을 비추는 달의 속성을 발견하고 있다.
- ⑤ ‘끝없는 사막’과 ‘별의 세계’에 미치는 달빛을 ‘사람’의 미미함과 대비하면서, 달빛의 무한함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기행 주체는 여행 장소의 풍경이나 풍속,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체험하면서 감흥을 얻는다. (가)와 (나)의 기행 주체는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가)에는 여행 장소에서의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려는, (나)에는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주로 나타난다.

- ① (가)는 ‘점심을 먹은 후’에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가는 것으로 표현한 데서, 시간의 순서에 따른 장소의 이동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 ② (나)는 ‘술’의 모습을 ‘푸르’고 ‘윤택하다’고 표현한 데서,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갖게 된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 ③ (가)는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데서, (나)는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④ (가)는 ‘조반’ 먹은 것을 ‘이십일 일’로, (나)는 ‘동해여관’으로 숙소를 정한 것을 ‘7월 3일(금)’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한 데서, 여정의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했음이 드러나는군.
- ⑤ (가)는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을, (나)는 ‘주인’이 ‘보름달’이라 답한 일을 기록한 데서, 여정 중의 만남에서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진옥은 월국에 승전한 일을 황제에게 전하고 돌아오다 문득 대풍을 만나 외딴섬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난다.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왈
“사십 후에 한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기 난중에 잃었나이다.”
진옥이 왈
“그 자식의 이름을 아시나이까?”
노인이 답왈
“내 자식의 이름은 김진옥이거니와 화초암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였더니 지금 사생존망을 모르나이다.”

하거늘 원수가 그제야 부친인 줄 알고 그 노인을 붙들고

㉠대성통곡 왈

“소자의 이름이 진옥이로소이다.”

하니 그 노인이 진옥이란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기절하고 엎어지니 진옥이 눈물을 그치고 부친을 위로하며 전후사를 낱낱이 설화하더라.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하더니 한곳에 다다르니 바람결에 청아한 ㉢옥피리 소리 들리거늘 살펴보니 일위 동자가 청의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⑩ 일엽편주를 타고 살같이 오며 왈

“김 원수는 배를 잠시 멈추소서.”

하며 급히 불러 왈

“수부 왕이 청하시니 가사이다.”

하거늘 원수가 대왈

“용왕은 수부 용신이요, 진옥은 진세지인이라.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오?”

원수가 부친께 고하여 왈

“어찌 하오리카?”

하니 그 부친이 왈

“용왕이 청하시니 어찌 거역하리오. 아모케든 가리라.”

하시니 원수가 동자를 따라 수부에 이르니 일월이 명량하고 천지가 광활하고 주궁이 장려하고 위위가 거룩하더라.

이때 용왕이 원수를 맞아 ㉠ 백옥상에 좌정한 후 왈

“원수의 존명을 들은 지 오래더니 오늘에서야 처음 보는도다.”

원수가 대왈

“저는 인간 사람이라. 이다지 관대하시니 감사무지로소이다.”

한참이나 자리를 즐기더니 한 신하가 아뢰어 왈

“동국 대병이 지경을 범하오니 대왕은 급히 막으소서.”

하였더라.

이때 용왕이 원수를 돌아보아 왈

“과인이 김 원수를 청한 것은 다름 아니라 동국 용왕이 **지경을 침노하니** 원수는 일신을 아끼지 말고 **공을 이루라**. 만일 **적병을 소멸하면** 수부의 영광이 될 것이요, 또 공을 **표창**하리다.”

하니 원수가 대왈

“저는 진세 사람이라 어찌 수부 용왕을 당하리오. 그러나 힘을 다하여 보겠나이다.”

용왕이 ㉡ 대회하여 즉시 정병 팔만을 조발하여 주거늘 동국 용왕과 **대진**하니 천지가 진동하고 **남해 용궁**이 가득 찬 듯하더라. 원수 사은하고 물러 나오니 군영이 엄숙하고 위엄이 진동하는 지라.

각설, 이때 **중국** 대병이 회환하다가 일야 대풍에 원수 탄 배 표풍하여 간 곳이 없는지라. 군중이 황황하여 두루 찾았으나 종적을 모르는지라. 삼 삭 만에 본국에 돌아와 황제께 아뢰길 ‘대원수 김진옥을 중도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대경차탄하시고 다른 제장 군졸들은 무사 귀국함을 기꺼 하시나 원수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이때 유 승상이 이 말을 듣고 ㉢ **대경실색**하여 부인과 소저와 주야 근심하여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 손 모아 기도 하더라. 이에 앞서 우양 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하매 형성군의 며느리 되었으니, 김진옥이 부마됨을 지극히 괴함을 시기하여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옥이 틈을 엿보더니, 원수 표풍하여 사생 모임을 듣고 대회하여 병부상서 정동한 등으로 통하여 황제께 여쭙오되

“갑자년 난중에 김진옥의 아버 시광도 오랑캐와 내응하다가 성사치 못함으로 월국으로 들어가더니 지금 진옥이 월국을 치는 체하다가 월국으로 도망하여 제 아버와 동심협력하여 중국을 해코자 하오니 그 처자를 어찌 살려 두리까? 황제는 앞날을 생각하소서.”

황제 그 말을 듣고 그러할 듯한지라 즉시 유 승상을 삭탈관직 하고 진옥의 처 유 씨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더라.

(중략)

각설, 이때 원수 수부에서 용궁 대병을 거느리고 일자 장사진을 쳐 제장을 호령하시니 선봉 장신갑이 아뢰어 왈

“동국 용왕은 유수진을 쳤거늘 원수께서는 어찌 일자 장사진을 쳤나니까?”

원수 웃으며 왈

“오행 중에 상극이 있으니 유수진을 치고 들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제장이 서로 돌아보고 왈

“원수의 **진법**은 과연 **명장**이라.”

하며 **칭찬**하더라.

이때 원수가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돈우더니 ‘동국 용왕은 들어보라.’ 하며 풍운조화를 부리니 동국 용왕이 ㉣ **대로**하여 비룡마를 타고 ㉤ **청전검**을 들고 달려들거늘 원수가 응하여 동서남북으로 충돌하다가 용왕의 머리를 베어 들고 만군 중에 횡행하니 수중 명장이 대경실색하더라.

이때 적진 군중에서 ㉥ **항서**를 써 올리거늘 원수가 받은 후에 군사를 몰아 돌아오니 용왕이 대회하여 원수와 그 부친을 좌상에 앉히고 원수 공덕을 무수히 **치사**하시더라. 그 부친으로 서해군을 봉하시고 원수로서 **동해군**을 **봉**하시니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2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린 ‘진옥’의 반응이며, ‘진옥’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 ② ㉡: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의외의 사실을 확인한 ‘노인’의 반응이며, ‘노인’이 격한 감정을 못 이기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 ③ ㉢: ‘진옥’의 태도에 만족한 ‘용왕’의 반응이며, ‘용왕’이 ‘진옥’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 ④ ㉣: ‘진옥’의 실종 소식에 대한 ‘유 승상’의 반응이며, 가족들과 ‘유 승상’이 ‘진옥’의 생환을 비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 ⑤ ㉤: 싸움을 결며 조화를 부리는 ‘진옥’에 대한 ‘동국 용왕’의 반응이며, ‘동국 용왕’이 ‘진옥’을 제압하려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2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에 대한 인물의 주의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 ② ㉡는 인물들이 계획했던 항해가 무사히 지속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당초 목적인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소재이다.
- ③ ㉢는 주변 풍광을 보여 주는 앞선 장면과 대비되어, 인물이 당면한 처지에 안절부절못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④ ㉣는 인물이 지닌 비범함을 돋보이게 하여, 직면한 공격에 상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게 도움을 주는 소재이다.
- ⑤ ㉤는 갈등의 양상을 감추어, 건네받는 인물이 상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기능하는 소재이다.

29. 다음은 학생이 읽글을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진옥전』에서는 진옥의 표류를 계기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가족의 상봉과 위기의 서사가 전개되었다. 진옥이 표류해 도착한 공간에서는 진옥이 부친과 상봉했는데, ㉠ 진옥과 부친이 이별하였을 때의 상황이 언급되었고, ㉡ 진옥이 부친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한편, 진옥이 부재한 공간에서는 진옥의 가족을 해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이 그러할 듯하다고 이해했지만, ㉣ 공주는 진옥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계락을 꾸몄다. 그 후 ㉤ 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에 의해 진옥의 가족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듯 표류는 진옥과 가족의 만남을 돕거나 방해하면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보기>를 참고하여 읽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진옥전』의 영웅 서사가 보여 주는 바다 세계에서의 모험담에서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변모된 서술 양상이 드러난다. 이 작품 속 초월적 세계는 다른 영웅소설에서처럼 인간 세계와의 간극을 지닌 곳으로 인식되지만,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으로도 그려진다.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의 요청으로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우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의 자격을 증명한다.

- ① 진옥이 ‘청의’를 입은 ‘동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용왕이 ‘공을 이루라’고 한 장면에서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 진옥으로 하여금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하려 함을 알 수 있군.
- ③ 진옥이 ‘지경’을 침입한 적과 ‘대진’하는 장면에서 ‘남해 용궁’에서도 ‘중국’처럼 전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 초월적 세계에도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진옥이 ‘진법’을 펼치는 장면에서 용궁의 ‘제장’이 ‘명장’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용왕이 진옥을 ‘치사’하는 장면에서 진옥을 ‘동해군’으로 ‘봉하’며 ‘표창’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A]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때맞춰 켜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맥(脈) 덜 여문 나비들이 저속으로 오간다.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B]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차에 올라 시동 걸고도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본다.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언제?
달포 뒤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
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영게 매달려** 있다면……
꽃도 황홀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

다리를 건너 가숙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 [C]
몸 돌려 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고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 받는 검은 둥치들이 [D]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E]
아 **하늘의 기둥들!**

- 황동규, 「살구꽃과 한때」 -

(나)

1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2
바윗돌처럼 뽕뽕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
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원통 피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
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신석정, 「역사」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의인화된 대상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이 집’, ‘저 집’과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 ② [B]: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 ③ [C]: ‘다리를 건너’며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
- ④ [D]: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둥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 ⑤ [E]: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3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 ② 2에서 ‘얼어붙었던 대지’라는 부정적 여건을 극복하여 ‘뚝고 솟아오른’다는 것은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을 드러낸다.
- ③ 2에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④ 3에서 ‘예쁘디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다는 것은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⑤ 3에서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시간적 속성에 주목하여 시적 대상을 의미화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구체적 이미지와 추상적 관념을 통합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며 포착한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냄으로써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을, (나)는 대상의 영속성에 주목하며 인식한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꽃을 ‘구름’으로, 나무둥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한 것을 통해,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② (가)에서 ‘분홍빛 더 실린’ 꽃의 모습과 ‘때맞춰 꺾 별’의 움직임 을 포착하여 그려 낸 것을 통해,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군.
- ③ (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마음’으로 표현되며,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 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는군.
- ④ (가)에서 ‘살구꽃’이 ‘허영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포 뒤쯤’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로, (나)에서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은 ‘환히 트인 길’로 상징된 역사적 전망으로 이어지는군.
- ⑤ (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를, (나)에서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은 영속성에 주목하여 ‘긴긴 역사’의 의미를 인식함을 보여 주는군.